

미얀마 방정환 기금

어린이는 우리에게 주는 하늘의 계시

‘수지’ 여사의 이동도서관 없애



〈미얀마 이동도서관 활동〉

2016년 아웅산 수지 여사가 만들어 미얀마의 산골 마을을 순회하던 이동도서관이 올해 초 몰수되어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동도서관은 기부금으로 차량 3대를 마련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산골 마을을 찾아가 책을 빌려주며 아이들과 놀았는데, 군부가 올해 초 차량과 시민들의 기부금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우리 기금의 어린이잡지 기증도 못 하게 돼

우리 기금은 2018년부터 수지 여사의 이동도서관에 매월 50권을 기증해왔는데 이마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교육을 걱정하는 아웅산 수지 여사



60년을 집권한 군부는 국민 교육을 참담한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부를 대신해 가난한 아이들을 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군부가 막아 대통령이 될 수 없었던

여사는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 미얀마에서 초등학교에 처음으로 음악과 미술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동도서관을 기부금으로 운영한 일도 정부 예산을 쓸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이잡지 기고 작가 초청 환담



지난 2월 우리 어린이잡지 만드는 작가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행인과 기고 작가들은 한국의 기부회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어려운 형편에서 펴내는 잡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 미얀마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져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작가 대부분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로 모두 10년 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난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할 겁니다”

잡지 발행인 틴 카잉(78세/왼쪽 끝) 선생이 한 말입니다. 선생은 2000년대 초부터 농촌의 엄마들을 위해 책을 펴냈습니다. 2010년부터 가난을 무릅쓰고 지금의 어린이잡지를 펴냈는데, 이 때문에 부인이 집을 나가 딸과 산다고.

선생은 자신이 쓴 여러 책의 판매대금으로 어린이잡지 제작비의 적자를 메우고 있습니다.



틴카잉 발행인이 2월에 펴낸 책. 여러 나라의 유명한 동화를 모아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방정환기금에서 100권을 싸게 사서 보육원 아이들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잡지를 선물해주신 귀한 분들

()은 입금 월

- 월 112,000원 : 김윤원(1, 2)/재단이사, 미국 교민
- 월 66,000원 : 스텔라(1, 2)/ 미국 교민
- 월 50,000원 : 백진양(1, 2) 최재화(1, 2)
- 월 30,000원 : 김경숙(1, 2) 김원경(1, 2) 이택규(1, 2) 조재선(1, 2)
최광규(1, 2) 최준수(1, 2, 3)
- 월 20,000원 : 김명국(1, 2) 황찬원(1, 2)
- 월 15,000원 : 김부예(1, 2) 김경숙(1, 2) 예옥석(1, 2) 이정애(1, 2)
조정복(1, 2) 최정복(1, 2)
- 월 12,000원 : 성경희(1, 2)
- 월 10,000원 : 강수연(1, 2) 강예슬(1, 2) 강계숙(일산/1, 2) 구은희(1, 2)
구자명(1, 2) 권지명(1) 김정화(1, 2) 김혜명(1, 2) 박봉희(1, 2)
박정희(1, 2) 손경희(1, 2) 유문숙(1, 2) 이지영(1, 2) 정영만(1, 2)
정현필(1, 2) 조수연(1, 2) 최영삼(12, 1, 2) 한동훈(1, 2)
- 월 9,000원 : 김유재(1, 2) 심선우(1, 2) 최명숙(1, 2)
- 월 6,000원 : 김순이(1) 배일택/엄지은(1, 2) 윤소암(1, 2) 이만희(1, 2)
최정임(1, 2) 현은옥(1, 2)
- 월 5,000원 : 강명희(11, 12) 김미숙/김민호(1, 2) 김원숙(1, 2) 김원심(1, 2)
김정모(1, 2) 박정애(1, 2) 배순호(1, 2) 서동욱(12, 1, 2) 유주희(1, 2)
윤신숙(1, 2) 한미자/정의정(1, 2)
- 월 3,000원 : 강제숙(11, 12) 김미경(1, 2) 김병진(1, 2) 김순자(1)
김연수/김인숙(1, 2) 김연옥(1, 2) 김원애(1, 2) 김원희(1, 2) 김장순(1, 2)
김종배(1, 2) 김주환(1, 2) 김홍원(1, 2) 김홍주(1, 2) 노길용(1, 2) 문해성
(1, 2) 민성숙(1, 2) 배성재(1, 2) 배수현(1, 2) 배순석(1, 2) 배재영(1, 2)
배진영(1, 2) 백마강(1, 2) 백정현(1, 2) 서판임(1, 2) 손미연(1, 2)
삼혜숙(1, 2) 안영실(1, 2) 오세현(1, 2) 오순희(1, 2) 오승선(1, 2) 윤치영
(1, 2) 이미경(1, 2) 이수원(1, 2) 이연희(1, 2) 이유진(1, 2) 이은옥(1, 2)
이풍연(1, 2) 이현숙(1, 2) 이현주/최희자(1, 2) 임경희(1, 2) 임승규(1, 2)
전교수(1, 2) 정미선(1, 2, 3) 정성용(1, 2) 조말연(1, 2) 최광선(1, 2)
최종흠(11, 12) 한영원(1, 2) 홍복표(1, 2, 3) 홍혜경(1, 2)

미안마 회원

- 월 2500원 : 틴카잉(1, 2), 난다코코((1, 2), 배찬다(1, 2), 조린(1, 2)
- 월 2,000원 : 뚝뚝(1, 2), 틴커투(1, 2)



미안마 어린이합창단을 키워주세요

미안마 양곤의 빈민 지역 어린이들을 모아 만든 합창단은 미안마에 하나뿐인 어린이합창단입니다. 부를 동요가 없던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자 신이 났습니다. 지휘 봉사를 맡은 민성숙 선생이 주위 분들에게 기부를 권해 여러분이 정기기부회원으로 등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4년 1월~3월).

고재오 김광기 김세현 김연식 김영희 김정 김현정
김현욱 민계숙 민성숙 박향림 백남호 백진양
서수진 성일경 성희진 심혜숙 안재은 오세현
유용운 이명주 이성순 정나원 천만용 최광익
한소운 한치만(위 27명).

기금계좌 : 국민은행 763637-04-004336(한벗재단)

최재화, 이명자 님의 기부

최재화(경산복지재단) 이사장님과 미안마 어린이에게 관심이 많으신 이명자 선생이 100만원과 20만원을 특별히 기부해주셨습니다.

이 기부금으로 합창단 단복을 입힐 계획입니다.

큰 도움 고맙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던 시절의 방정환 선생처럼 미안마의 전기 없는 농촌학교와 보육원에 어린이잡지를 보내주세요.

방정환기금 입금계좌

국민 640601-04-006175
신청전화 : 02)393-0661
(월 3,000원부터)

